

“핸드폰 강국, 한국 주최의 핸드폰 카메라 모듈 관련 국제 전시회가 개최돼야”

‘LASER EXPO 2008’에 다녀와서 ...

Laser Expo는 비록 규모가 큰 전시는 아니지만 광학 분야별로 세계적인 회사들이 거의 참여하여 응용기술 및 관련 제품을 전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일본에서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인터옵토의 세트제품전시회와 차별화하여 기간 중 분야별 전문기술세미나도 같이 개최한다. 무엇보다도 렌즈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기술에 대한 교류의 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본 전시회의 백미가 아닌가 싶다. 금년이 3회째이므로 해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씨니코리아(주) 대표 정수호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본 요코하마시 퍼시픽요코하마 전시 홀에서 광 관련 전시회가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전시회는 사단법인 일본 레이저학회가 주최한 ‘LASER EXPO 2008’, 월간 OPTRONICS가 주최한 ‘렌즈설계 및 제조전 2008’과 ‘광화이버 종합기술전 2008’ 등의 3분야로 나뉘어져 동시에 개최됐다. 협찬사로는 일본 광학회, 일본 레이저기술 등 약 16개사가 참여했다.

본 고에서는 렌즈 설계 및 제조전 2008(이하 렌즈전) 중심으로 전시회를 소개하겠다. 참고로, LASER EXPO 2008(이하 “레이저전”)과 광화이버 종합기술전 2008(이하 “광화이버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한국광학기기협회로 연락을 부탁드린다.

‘렌즈 설계 및 제조전 2008’

금년 참가업체는 레이저전에 약 77여 개, 광 화이버

전에 약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비교적 소규모로 열렸다. 반면, 렌즈전은 무려 230여 개 업체가 참가한 대규모 전시회였다. 아쉬운 것은 일본에서 개최된 전시회이지만 해외에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관련 회사들도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한 반면, 한국의 경우 직접 참여한 회사는 없었으며 전시회를 관람하러 온 사람도 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비록 전시회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광학 분야별로 세계적인 회사들이 거의 참여했으며, 또한 응용기술 및 관련 제품을 대부분 전시했기 때문에 이 전시회가 갖는 의미가 컸다고 본다.

렌즈전의 경우 크게 광학부품 회사, 광학부품 가공설비 회사, 광학소재 회사, 광학계측기 회사, 광학부자재 회사, 광학 관련 연구소 그리고 광학 관련 서적 및 잡지 회사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기업 및 기관이 참가했다.

다음의 표에 렌즈전의 분야별 주요 참여회사와 전시항목 등을 나타냈다.

이 전시와 관련하여 참가사 및 전시항목에 대한 상세 내역은 한국광학기기협회로 문의 바란다.

분야	참여회사(전시항목, 국가)	비고
광학부품	캐논, 올림푸스, 니콘, 후지논, 일동광학, 치논텍(이상 줌렌즈), GENIUS(렌즈), KINIK(렌즈, 대만), SUNNY(렌즈, 중국)	
광학부품 가공설비	FUNUC, SUMITOMO, OPTORUN, SHONAN, UDAKAWA	
광학소재	HOYA, SCHOTT, SUMITA, OHARA, HIKARI, 광초자(이상 광학초자), 성도광명(광학초자, 중국)	
광학계측기	올림푸스, TRIOPTICS, HITACHI, OPTO DEVICE, PEARL, 마부치S&T, FUJIKODEN, TOKYO INSTRUMENTS	
광학부자재, 금형	FUJI DIE, NACHI-FUJIKOSHI	
연구소 및 서적	월간 OPTRONICS, 광제품Buyer's Guide	

선진 광학업체들 참여, 응용기술 및 관련 제품을 대거 전시

이 전시회는 일본에서 매년 개최되는 인터옵토의 세트제품전시회와 차별화하여 기간 중 분야별 전문기술세미나도 같이 개최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렌즈전 세미나의 경우 「마이크로 비구면 렌즈의 정밀가공과 측정,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손 떨림 보정기술, 「초정밀 5축 나노가공기의 특징과 가공사례에 관하여」 등의 주제로 업계와 학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됐다. 또한 분야별 기술서적, 잡지, 연구논문 등도 한 눈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와 같이 본 전시회는 유관 선진기술을 일본 특유의 일목요연한 정리를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아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렌즈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기술에 대한 교류의 장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본 전시회의 백미가 아닌가 싶다. 금년이 3회째이므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렌즈전의 경우 현재까지는 글라스 초자를 기초로 한 제품, 가공설비, 측정기기, 부자재 등을 위주로 했으며, 핸드폰 렌즈와 관련된 전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비구면 렌즈 성형분야에서는 성형기 및 금형업체들이 일부 참여했다.

핸드폰렌즈 관련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 분야의 발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세트메이커인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동화의 확대를 통한 국내제조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핸드폰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2위의 위치에 올라있는 한국이 한시바빠 주도가 되어 핸드폰카메라모듈 관련한 전시회를 개최 했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는 바이다.

다음 전시회는 2009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며, 전시회 관련 문의는 주최사인 event@optronics.co.jp로 연락을 취하기 바란다.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 가입안내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단체로서 우리나라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및 회원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기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내 광학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회원가입을 안내하오니 희망업체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구성 : 정회원 및 특별회원

2. 회원 서비스 및 특전

- 국내외 광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기술개발지원 자금안내 및 사업참여
- 동종업계 공동사업 참여 및 교류
- 협회발간 '광학세계' 에 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
- 정책지원 대상업체 추천, 확인 및 수혜 안내

3. 가입금 및 기본회비 : 업체규모에 따라 차등

4. 가입신청 및 문의

- 전화 : (02)3481-8931
- 홈페이지 : www.koia.or.kr